메시지 12

신랑, 신부의 성숙,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

성경: 요 3:29상, 마 9:15, 히 6:1, 계 19:7

Ⅰ.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다 — 마 9:14–15, 22:2–3, 25:1, 5–6, 10.

A.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다.

B. 침례자 요한은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라고 말했다 — 요 3:29상.

C.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신랑으로 제시하셨다 — 마 9:14–15, 막 2:19.

1. 성경 끝에서 우리는 '어린양의 아내'라는 표현을 본다 — 계 21:9.
2.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은 구속자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없애신 어린양은 또한 결혼하기 위한 우리의 신랑이시다(계 19:7).

D. 신랑의 임재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만질 때, 곧 신랑이신 주님을 만질 때, 그분의 사랑스러움과 달콤함과 신선함을 만진다. 그분은 너무도 사랑스러우시다!

E. 영한 동번 찬송가 170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40장)은 "사랑스런 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일세 / 매혹적인 주님 자신 아름다운 주 예수"라고 말한다.

F.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는 네 방식(네 방면)이 있다.

1. 첫째, 우리는 신랑의 들러리인 친구들로서 신랑을 누린다 — 마 9:15.
2. 둘째, 우리는 손님으로서 우리의 잔치이신 그분을 누린다 — 눅 14:15–17, 계 3:20, 19:9.
3. 셋째, 우리는 처녀로서 신랑의 오심을 누린다 — 마 25:1–13.
4. 넷째,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극도로 누릴 것이다 — 계 19:7.

G.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 구속받은 이들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신랑의 짝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 계 19:7–8, 21:1–2, 9–10.

H. 우리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 그분은 그분의 신부인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2. 주님께서 신랑이신 것에는 그분의 오심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Ⅱ. 우리는 신부의 성숙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 — 고후 3:18, 롬 8:29, 엡 4:13, 15, 히 6:1, 계 19:7하, 21:2, 9.

A.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은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B. 신성한 생명의 성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연인은 술람미('솔로몬'의 여성형)가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 아 6:13, 계 21:2, 9–10.

C. '성숙한'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끝 지점에 이른'을 의미한다.

1.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 히 6:1, 골 4:12, 롬 12:2, 벧후 1:3.
2.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이다 — 벧후 1:4–8.

3. 성숙한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몸을 주의하며,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는다 — 고전 12:16, 18–19, 21, 24.

D. 신약에 사용된 것처럼 '성숙한'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완전히 자라서, 거듭났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 딛 3:5, 벧전 1:3, 23, 마 5:48.

1.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 빌 3:12, 14.
2.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즉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기를 추구함으로써,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나아가고 전진해야 한다 — 빌 3:12–15.
3. 영적 생명이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는 것이다 — 엡 4:15.
4.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것의 궁극적인 결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된다. 곧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 — 엡 4:13.

E.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농부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예시로 사용한다 — 약 5:7.

1. 주 예수님은 사실상 참된 농부, 유일한 농부이시다 — 마 13:3.
2.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동안, 참된 농부이신 주님도 그분의 밭의 첫 열매와 곡식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 계 14:4, 14–15.
3. 우리가 "주님, 속히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성숙해야만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4.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린다면,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F.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갈 4:19, 고후 3:18.

1.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오셨다 — 고후 3:18, 롬 8:29.
2.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으로 완전히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실 때,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를 것이다 — 엡 3:16–17.

Ⅲ.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어야 한다 — 엡 5:25–27, 6:10–18, 계 19:7–9, 11–16.

A.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났던 전쟁을 묘사해 준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B.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 계 12:10.

C. 영적 전쟁은 몸의 문제이다. 우리는 단체적인 군대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전투를 치르고 있다 — 계 17:14, 19:14, 비교 딤후 2:4.

D. 그리스도는 싸우는 장군으로서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실 것이다 — 계 19:11-21.
   1.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와 함께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서 오실 것이다 — 마 26:64, 계 14:14.
   2.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그분께 어울리고 그분을 완전하게 하는 짝이 필요하실 것이다. 이 짝이 그분의 신부일 것이다 — 계 21:2, 9.
   3. 그리스도는 이미 악한 자에게 승리한 이기는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4. 결혼 예복, 곧 우리가 매일의 의로 살아 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주실 뿐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항해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군대에 참여할 자격을 주신다 — 마 22:11-12, 계 19:7-8, 14.

E. 아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기는 연인이 디르사만큼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 사랑스럽지만, 원수에게는 깃발을 든 군대만큼 두렵다는 것을 본다 — 아 6:4, 10.
   1. 그리스도의 연인들은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동시에 두려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잃어버렸고 원수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 아 6:4, 10.
      a. 그리스도의 연인은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어여쁘며, 하늘에 속한 성처럼 견고하고, 성소처럼 고요하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연인은 원수와 세상 앞에서 자신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 — 아 6:4, 10.
      b. 그리스도의 이기는 연인은 소망으로 가득한 장래가 있고 절대적으로 하늘에 속한 생활이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승리자이다 — 아 3:7-8.
   2. 두렵게 하는 군대는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아 6:4, 10.
      a. 원수는 하나님의 성으로 건축된 교회를 두려워한다 — 느 6:15-16, 시 102:12-16.
      b. 사탄은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사탄과 그의 왕국에 대항해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은 두려워한다 — 엡 6:10-20.

F.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삼상 25:28), 아비가일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며 전쟁하는 교회를 예표한다(2-42절).
   1. 사무엘기상 25장부터 아비가일은 항상 전사인 다윗 곁에 있으면서 전쟁 중인 다윗을 따랐다 — 삼상 25:40-42.
   2.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한 것은 교회가 전쟁을 위해 군대로 징집된 것을 예표한다 — 엡 6:10-20.
   3. 아비가일이라는 예표는 교회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해 준다.
      a.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또한 패배당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b. 영적 전쟁이 필연적인 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맞서기 때문이다 — 마 6:10, 7:21, 사 14:12-14.

1)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
2) 교회로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 계 12:11.
3) 우리의 영적인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G.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 계 11:15.

© 2026 Living Stream Ministry